

유튜브, 모바일 동영상 앱 중 사용시간 1위

한국인 10명 중 4명 유튜브로 뉴스 시청



유튜브(YouTube) 시청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은 지난 5월 한국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앱의 사용시간 점유율을 발표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1위는 유튜브로 3,272만명이 총 414억 분을 이용했다. 구글 플레이의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로 등록된 모든 앱들의 총 사용시간인 468억 분 중 88%를 점유한 수치다.

<그림>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

와이즈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카테고리 분석

■ 17년 11월 점유율 ■ 18년 5월 점유율 ■ 18년 11월 점유율 ■ 19년 5월 점유율

(단위 : %)



유튜브는 1년 새 점유율 2%가 올랐다. 작년 5월 유튜브는 월 사용시간 291억 분을 기록해, 동영상 카테고리 사용시간의 341억 분의 86%를 점유했다. 올해 5월에는 동영상 카테고리의 사용시간의 88%를 점유하며 소폭 올랐다. 2위는 틱톡으로 367만 명이 총 11억 분을 사용해 동영상 카테고리의 2.4%를 차지했다. 이어 아프리카TV와 옥수수(각 9억 분/1.9%)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이용 현황에 차이를 보였다. 10~50대 모두 유튜브 사용시간이 가장 길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용한 모바일 동영상 앱은 차이가 났다. 10대는 유튜브(98억 분), 틱톡(8억 분) 순으로 총 사용시간이 길었다. 20대는 유튜브(85억 분), 아프리카TV(4억 분) 순이었다. 30대는 유튜브(63억 분), 아프리카TV(3억 분)의 순이었다. 40대는 유튜브(61억 분), 옥수수(4억 분)의 순이었고, 50대 이상은 유튜브(107억 분), 옥수수(1억 분)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5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카테고리의 전체 사용시간 114억 분 중 107억 분을 유튜브서 이용해 94%의 점유율로 전체 세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튜브로 뉴스나 시사정보를 시청하는 우리나라 국민 비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 5권 2호에 실린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9'에 따르면, 국가별 설문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지난 1주일 동안 뉴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한국은 40%를 기록했다. 이는 38개 조사대상국 중 4위로 전체 평균 26%보다 14%포인트 높다. 유튜브 뉴스·시사정보 시청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터키로 57%를 기록했으며, 대만(47%), 멕시코(41%), 폴란드(38%), 말레이시아(37%) 순이었다. 반면 덴마크(8%), 영국(10%), 노르웨이(13%), 네덜란드(15%)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시청 비율이 낮았다.

한국은 유튜브 이용 양상도 두드러졌다. 38개국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튜브 뉴스·시사정보 시청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한국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고른 경향을 보였다. 특히 55세 이상 유튜브 뉴스·시사정보 시청 비율을 보면 한국은 42%로 38개국 평균 22%를 20%포인트 웃돌았다.



▲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

정치성향에 따른 영향도 컸다. 38개국 전체적으로 정치성향에 따른 유튜브 뉴스·시사정보 시청 비율의 차이는 미미했다. 반면 한국은 진보나 보수 정치성향인 이용자들이 중도 성향 이용자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유튜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짜뉴스를 우려하는 응답자 비율을 보면 한국은 59%로 높은 편이지만, 38개국 가운데서는 중간 정도 순위다. 영국은 70%로 가장 높았고, 미국(67%), 프랑스(67%), 호주(62%), 캐나다(61%) 순이었다.

'디지털뉴스 리포트'는 주요국 디지털뉴스 이용과 생태계 현황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동연구로 참여했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 6월 13일 홈페이지(www.digitalnewsreport.org)를 통해 공개됐다. **KAA**

김다혜 dahye@kaa.or.kr, 이명진 soziro01@kaa.or.kr